

中 우한 봉쇄 풀린 첫 날 5만5천명 기차 이동

900만 우한 주민 일상 회복 76일만에...2500명 사망 '우한 포비아' 극복 등 과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히 퍼지는 가운데 이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 도시 우한(武漢)에 대한 봉쇄 조치가 8일 풀렸다.

일본이 코로나19 급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사태에 돌입한 시점에 중국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에 대한 봉쇄를 해제해 눈길을 끈다.

특히 900만명이 고립됐던 우한의 봉쇄 해제는 시진핑 국가주석 지도부가 전면에서 나선 '코로나19 인민 전쟁'의 종식 선언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 각국 상황과 대비된다.

중국 후베이성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는 교통 통제를 해제했다. 통제가 풀리자 0시부터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거쳐 우한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일부 톨게이트 앞에는 줄이 3km나 늘어섰다.



8일 코로나19 봉쇄해제로 열차 운행이 재개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기차역에 방호복을 입은 승객들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한을 떠나는 기차, 항공기도 이날 오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신경보에 따르면 봉쇄 해제 첫날인 이날 열차를 이용해 우한을 떠나는 사람만 5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40%는 중국의 제조업 중심지인 주장(珠江)삼각주 지역으로 떠난다.

항공기는 이날 하루 271편 운항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우한에서 출발하는 것이 131편이다.

우한은 1월 23일 이후 전날까지 76일간 봉쇄 상태에 있었다. 그동안 우한은 외부와 통로가 단절되고 모든 공공 교통이 중단되면서 '유령 도시'로 변했다. 주택 단지도 폐쇄식 관리로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8일 우한에서 봉쇄가 풀리면서 항공기와 기차 운장이 재개됨에 따라 건강함을 증명하는 휴대전화 '녹색 건강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우한 밖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우한시는 다른 지역과 통행을 막아온 75개 통제 지점을 철거하며 이동 제한을 풀었으나 검문검색, 영상 감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제를 위한 고삐는 놓지 않을 방침이다.

우한시는 주택단지에서도 폐쇄식 관리를 계속할 예정이다.

우한 봉쇄 해제로 기차역과 공항의 운영도 재개되지만, 앞으로 적지 않는 난관도 예상된다.

우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경우 14일간 격리 여부와 더불어 중국 정부의 지침에도 '우한 포비아'로 인해 다른 지역 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 베이징시는 우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우한을 떠나기 전과 베이징에 도착한 후 각각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거친 뒤 의학 관찰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트럼프 "WHO 중 중심적...자금지원 보류 검토"

"나바로 보고서 보지 못했다" 美 코로나 사망 하루 최고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미국의 피해가 정점을 향해 간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WHO로 관심과 비난의 화살을 돌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이 코로나19 위험성을 경시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이 미국의 치어리더라는 말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악관 태스크포스(WP) 브리핑에서 "WHO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는다. 우리가 내는 돈이 그들이 가장 비효율적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WHO는 나의 (중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에 동의하지 않고 비판했다. 그들은 틀렸고 그들은 많은 것들에 틀렸다. 그들은 아주 중국 중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WHO는 잘못 짚었다. 시점을 놓쳤다"면서 "우리는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

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돈을 내고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도중 "WHO에 쓰이는 돈을 보류할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보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FP통신은 WHO의 가장 큰 자금원이 미국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을 언제 보류할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 국장이 지난 1월 말 대규모 인명피해를 내다보며 작성했다는 보고서와 관련, "보지 못했고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나바로 국장이 보고서를 작성한 당시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경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나는 이 나라의 치어리더"라고 답했다.

미국은 이날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최고치를 보이면서 누적 숫자가 1만2000명을 넘어섰다. 또 전날 36만여명이었던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만에 40만명에 근접했다. CNN 방송은 존스홉킨스대학 집계를 기준으로 사망자가 하루 사이 1736명이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국, 코로나 고비 넘겼지만 경제 여전히 마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성과를 냈지만, 경제는 여전히 마비 상태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한국, 코로나 확산 잡았지만 경제 마비 지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전히 한국인들이 외식이나 쇼핑 등을 꺼리면서 경제 회복이 늦어지는 상황을 소개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8.4로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였고 서울 시내 카페 주인은 지난 한 달간 300시간 넘게 영업을 하고도

100만원을 벌지 못했으며 상당수 직장인은 여전히 재택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도 조만간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 뒤 상황을 가늠하고자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먼저 성과를 낸 한국의 현황을 들여다봤지만 경제 회복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내용이다.

이 매체는 "한국 경제의 마비 상황은 공공보건 측면의 승리 뒤에도 경제의 신속한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면서 아직 감염 확산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지 않은 미국, 유럽 등은 정상적인 상황 회복까지 긴 여정이 남아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아파트 옥상서 치러진 코로나19 약혼식.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겪고 있는 스페인 남부 론다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7일(현지시간) 우한 마누엘 사모라노(32·가운데 왼쪽)와 엘레나 곤잘레스(31)가 약혼식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발코니에 나와 손을 흔들며 축하해 주고 있다. /연합뉴스

대만 "격리위반 한국인 부부 강제구인 고려"

대만 당국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출국을 시도한 한국인 부부의 계속된 비협조에 강제구인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대만 EBC 방송과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 산하 행정집행서는 지난 6일 이들 부부가 계속된 독촉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중화민국(대만) 법률에 따라"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행정집행법 제19조에 따라 관계당국은 공법상 금전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강제구인 및 법원의 허가에 따라 최장 3개월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이들 부부가 지난 2월 25일 대만 남부의 가오슝(高雄) 공항을 통해 들어와 격리 전용 호텔에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했지만, 격리 해제 하루를 앞두고 물건 구매를 위한 외출로 적발된 후 관계 서류의 서명을 2차례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호텔을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됐고, 지난 2일 북부 타이완(桃園) 공항에 출국을 위해 나타났다가 저지당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밝혀 주타이베이 한국 대표부의 도움으로 북부의 한국 교회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일부 세계 슈퍼리치 인공호흡기 개인용 구매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긴요한 인공호흡기가 세계 곳곳에서 부족 현상을 빚는 가운데 일부 슈퍼리치들이 개인용으로 사들여 논쟁을 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개인용 구매 문의가 미국, 유럽, 러시아 등의 인공호흡기 제조업체에 전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외 치료가 불가능해진 러시아 부자들은 개인용 치료소까지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트리톤일렉트로닉스시스템즈는 한 대당 2만5000달러(3000여만원)를 호가하는 호흡기 수요의 7%는 개인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인공호흡기뿐만 아니라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고급 주치의의 수요 등도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연합뉴스

미국 시장 부인, 몰래 술집 갔다가 코로나 단속에 걸려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시장(市長) 부인이 코로나19 자택 대피령을 어기고 몰래 술집을 찾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고 7일(현지시간) NBC 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남부 올턴시의 브랜트 워커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의 부인이 코로나19 행정 명령을 무시하고 술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자택 대피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술집을 급습해 주인과 손님들을 체포했는데, 워커 시장의 부인도 단속에 걸린 것이다.

워커 시장은 "아내가 금지된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게 돼 당혹스럽다. 아내에게 특별 대우를 하지 말라고 경찰에 지시했다"며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아내는 판단력이 부족했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다른 주민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